

к с і

일상이 봉쇄되는 그 순간 : 장아이링 소설에 입문하는 한가지 방법

박자영*

<목 차>

1. 들어가며
2. 장아이링의 일상/비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시선들
3. 봉쇄된 일상, 일상의 봉쇄
4. 이국 경험—“전혀 다른 세상에서”
5. 나가며

1. 들어가며

장아이링(張愛玲) 소설은 지긋지긋한 일상을 전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이 세계의 질서를 세밀하게 따라가면서 이에 순응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계와 길항하면서 이에 저항하고 타협하며 때로는 탕진하기도 하는 인간 삶의 양상을 세밀한 묘사와 풍부하면서도 살아있는 이미지로 윤기 있게 서술하는데 주력한다. 이 때 세밀한 묘사는 현실을 추수하고 추인하는 기능을 멈추고 일상의 균열과 불균형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전화한다.¹⁾ 그리고 소

* 협성대학교 중문학과 전임강사

1) 레이 초우(Rey Chow, 周蕾)는 영문잡지인 *The XXth Century*에 실린 장아이링의 “Chinese Life and Fashions”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그녀 서술에서 돋보이는 ‘세부 묘사(detail)’를 역사와 현실의 거대서사와 불일치하는 의도적인 서술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세부묘

설에 등장하는 풍부한 이미지는 텍스트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데 기여한다.²⁾ 이렇듯 장아이링 소설은 일상의 구멍과 불균형 및 다의성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거대서사의 붕괴 이후(post)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과 연구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반세기 이전인 1940년대 상하이에서 창작된 장아이링의 텍스트들이 중화권에서 장아이링 매니아(張迷)를 형성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게 된 데에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일상적인 삶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감각을 서술하여 현대세계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까닭 이외에³⁾ 유토피아적인 이념의 지향이 무너져 내린 시대에 대두하는 ‘일상’에의 주목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장아이링이 일상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정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상이며 어떻게 일상을 다루는지에 놓여있는데 연구들이 유사하게 장아이링 텍스트에 투드러진 일상의 요소에 착목하지만

시는 개혁과 혁명과 같은 거대한 ‘비전’과의 모호한 관계에 존재하는 감각적이고 사소하며 파인적인 텍스트의 현존으로 정의된다. Rey Chow, "Modernity and Narration—in Feminine Detail", *Women and Chinese Modernity: the Politics of Reading between West and Eas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pp. 84-85.

- 2) 장아이링 소설의 매력이 이미지의 원활한 운용 등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과 스타일에 있음은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이다. 귀샤오희는 장아이링 소설의 원활한 이미지 운용의 중요한 예 가운데 하나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달’의 다양한 비유를 들고 있다. 장의 소설에서 ‘달’의 이미지는 차갑고 밝고 몽롱하며 동정적이면서도 감상적이고 잔여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달’의 비유는 인간의 은밀함과 잔혹함을 반영하는 것이자 유약함과 당황스러움, 난관 등의 상태를 드러내준다. 郭曉鴻, 〈張愛玲小說的文化模式〉,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1年 第1期, 217, 219쪽.
- 3) 루이는 장아이링 현상의 핵심을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현대적인 특징을 지닌 텍스트라는 점에서 거론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장아이링 현상’의 핵심으로 △ 소재를 다루고 내용을 표현하는 독특한 시각(작가의 여성 시각 등등) △ 초월적이고 특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문학표현 기교 등을 꼽고 있다. 그 중 후자에서 풍부하면서도 활달하고 생생한 이미지와 심리묘사, 친구 소설체의 융합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들고 있다. 陸藝, 〈說不盡的“張愛玲熱”〉, 《開放時代》, 2002年 第6期, 134-135쪽. 장아이링의 죽음 직후에 출간된 천즈샨이 편집한 다음의 책에서도 이러한 장아이링 붐을 느낄 수 있다. 이 속에서 대표적으로 왕더웨이 등의 글이 장아이링 현상을 논하고 있다. 王德威, 〈張愛玲現象: 現代性、女性主義、世紀末視野的傳奇〉, 陳子善編, 《作別張愛玲》, 文匯出版社, 1996年. 기타 왕더웨이의 다른 글과 천즈샨 등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王德威, 〈落地的麥子不死: 張愛玲的文學影響力與“張派”作家的超越之路〉, 《想像中國的方法: 歷史·小說·敘事》, 三聯書店, 1998年; 陳思和, 〈關於張愛玲現象〉, 《犬耕集》, 上海遠東出版社, 1996年.

이에 대한 분석의 출발과 경로가 다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장아이링의 소설들이 정상/비정상의 일상/비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사가 일상-비일상-일상의 선회 및 회귀 과정 속에 놓여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⁴⁾ 그러나 이 일상과 비일상의 갈마들 가운데 어디에 논의의 방점을 두느냐를 두고 연구자들의 시각이 나뉘지며 전체적인 텍스트 해석의 방향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논문은 이러한 장아이링 텍스트의 열쇠말인 일상/비일상에 대한 이원적인 관계를 보는 견해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존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의 가닥을 잡고자 한다.

2. 장아이링의 일상/비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시선들

장아이링이 일상/비일상을 다루는 연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동의될 수 있는 첫 번째 견해는 재미 중국학 연구자인 멩위애(孟悅)가 요령있게 포착한 서술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장아이링의 소설이 이중적인 새로운 경관을 동시에 창조하면서 이중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서술활동”을 보였다는 논의를 전개한다.⁵⁾ 중국대륙 출신 연구자로서 초기에 장아이링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던 멩위애는 장아이링의 텍스트가 일상과 귀기, 전통과 현대 등이 뒤섞인 이중적인 새로운 경관을 전시함과 동시에 넘나드는 새로운 상상력을 전개하는 ‘전기(傳記)’⁶⁾라는

4) 대표적으로 장아이링의 심미적 관조방식을 ‘툭날형+나선형’ 식의 모델로 정리하고 이를 직선적인 남성의 사유모델과 대비시킨 메이자링의 분석을 들 수 있다. 梅家玲, 〈烽火佳人的出走與回歸:《傾城之戀》中參差對照的蒼涼美學〉, 楊澤編, 《閱讀張愛玲:國際研究討論論文集》, 臺北: 麥田出版, 1999, 272쪽; 김수연, 〈문화적 기억, 역사 그리고 시공: 시집존과 장애령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20호, 212쪽에서 재인용.

5) 이 논문은 1992년 잡지《今天》에 최초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참고, 인용한 판본은 가장 최근에 편집수록된 왕샤오밍이 주편한 다음의 책에서이다. 孟悅, 〈中國文學“現代性”與張愛玲〉, 王曉明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下卷(修訂本), 東方出版中心, 2003, 106쪽.

6) 《전기》증정본 권두에서 표지그림을 만칭의 미인화에 현대인을 가미시켰다고 설명하는 장아이링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전기’라는 새로운 서술이 담지하는 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 “만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보여준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⁷⁾ 명위애의 진술은 장아이링의 텍스트에서 두드러진 이중적인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이중적인 관계가 동시에 출현하는 양상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켜 이를 새로운 현실이자 상상력의 가능성으로 고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서술 방식의 출현에 주목하여 이 자체가 새로우며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귀샤오홍(郭曉鴻)의 연구가 있다. 귀도 장아이링 소설 서사에서 두드러진 이중적인 대립구조--전통관념과 현대의식, 전기서사와 현대의 인성, 고전정서와 난세의 분위기, 구소설의 서사법과 신문학의 입론 등등--를 지적하는데 이는 아이러니 수법과 이미지의 탄력있는 운용 등과 같은 서사의 서술과정 중에서 체현되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는 그중에서 특히 '아이러니'를 장아이링 소설에서 불균형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하는 주요한 수법으로 격상시킨다.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아이러니를 활용한 어긋남과 초월의 서술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와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설득력있게 진실을 구축하며, 이러한 아이러니적 표현은 형용사와 과장으로 점철된 서술에 비한다면 풍자적이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⁸⁾

두 번째는 이러한 일상-비일상-일상의 구조 속에서 '선회'하는 일상의 위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연구의 시각은 비일상의 영역에 맞춰져 있으나 이 비일상의 영역이 어떻게 좌절하며 또 어떻게 이 속에서도 일상의 본질이 확대되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논의의 구도를 보인다. 이 속에서 일상은 비일상의 영역을 잠식하거나 억압하는 강력한 자장을

청의 미인도를 빌려서 한 여성이 골페를 가지고 놀고 옆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유모 그림을 그렸다. 언뜻 보면 일상적인 저녁식사 후의 한 장면 같다. 그러나 난간 바깥에 비레가 맞지 않는 사람 형태가 귀신처럼 튀어나와 있다. 그는 현대인(現代人)이다. 호기심어린 눈초리로 안을 열심히 엿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의도했던 분위기라고 해야겠다." 張愛玲, 《新傳奇》(《傳奇》增訂本)卷首, 上海中國圖書公司, 1946. 명위애, 위의 글, 106쪽에서 재인용.

7) 명위애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중국의 현대성(modernity)의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미완'의 '현대', '신(新)과 구(舊)가 뒤섞인' 중국의 현실을 서사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으로 장아이링의 서술방식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孟悅, 위의 글, 104쪽.

8) 郭曉鴻, 〈張愛玲小說的文化模式〉,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1年 第2期.

지낸다. 이러한 시각을 보이는 대표적인 연구로 임우경과 백영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장아이링의 ‘전쟁’ 체험이 녹아있는 <봉쇄(封鎖)> 와 <경성지련(傾城之戀)> 을 분석하면서 임우경은 전쟁이 일상과 불가분의 공모관계에 있으며 이들이 형성하는 긴장관계가 장아이링 창작을 이루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장아이링에게 전쟁은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축제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일상을 파괴하는 억압적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임우경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쟁의 계기에도 확대되는 일상의 논리이다. 장아이링이 “전쟁의 축제적 성격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한 것 역시 일상의 강력한 흡인력과 중독성”이었으며 “일상의 견고함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전쟁은 하나의 계기 혹은 장치로서 더욱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본질들은 전쟁이라는 비일상적인 시공간을 통해 전면으로 확대되어 드러난다는 것이다.⁹⁾

비일상적 공간을 접거하는 일상의 강력한 그림자는 잠재된 정욕의 세계를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백영길의 연구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집’으로부터의 탈출과 정욕의 추구를 통한 자아의 발견, 그리고 자아의 파멸 혹은 회귀의 욕구라는 패턴으로 장아이링의 소설의 구도를 읽어낸다. 그런데 장아이링의 소설에서의 회귀는 ‘교양소설’에서의 성숙된 귀향이 아니라, 낡은 자아의 파멸이 동시에 정체성 회복의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회귀 욕구는 하나의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고 기껏해야 기존의 가정으로의 회귀와 함몰, 결국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

탈일상의 시도가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장아이링 창작에서 현대의 ‘공포’와 ‘허무’의식을 읽어내는 장신잉(張新穎)의 연구에서도 도드러진다. 그런데 그는 일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일상의 승리나 탈일상의 실패가 아니라 이 과정이 일상의 논리와 규칙은 허망하다는 깨달음, 곧 궁극적인 허무의 심연에 도달하는 궤적으로 돌린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백영길의 논의와 흡사하나 장신잉

9) 임우경, <전쟁과 일상: 전쟁체험과 장애령의 문학세계>, 《중국현대문학》 제17호, 184쪽.

10) 백영길, <장애령 소설의 정욕과 허무의식>, 《동아문화》 제34호, 1996년, 45쪽.

은 이러한 ‘허무’ 의식을 좀더 심연으로 밀어붙여서 이를 정욕의 추구 욕망을 넘어서는 세계와 삶을 인식하는 궁극적인 논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런 다른 관심은 의미를 길어내는 지점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바, 그는 장아이링의 회귀 서사를 일상의 논리가 성공적으로 관철되었다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 서술의 합리화와 일상경험화의 ‘실패’로 읽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장아이링 소설에서 서술은 공허나 공포, 광기의 요소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며 왜곡 및 병태적인 양상을 해석가능한 일상경험의 요소로 환원시키고자 하나, 광기는 철저히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서술의 실패를 소설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세 번째는 장아이링의 텍스트에서 일상으로의 회귀 논리보다 비일상적인 경험 이 지니는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에서 비일상적 공간은 일상의 논리가 관철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일상의 논리가 담지할 수 없는 지향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서 긍정적으로 가치 부여된다. 이런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근대성 연구, 도시연구의 관점에서 비일상적 봉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순진은 장의 비일상적 공간이 ‘닫힌 공간’으로 표상되는 경향을 눈여겨보며 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원형의 공간의 상징으로 과감하게 읽어내는 방식을 취한다. 그는 장아이링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여성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닫힌 공간을 설정했다는 가정을 제출한다. 여기에서 “‘닫힌’ 공간이란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때 외부세계는 질서와 규칙의 세계, 즉 남성중심적 상징계적 세계를 의미”한다.¹²⁾ 대표적으로 ‘봉쇄’라는 인위적인 통제 속에서 그리고 인공적으로 단절된 공간 속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잠시동안의 원형공간이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공간이기에 꿈과 같은 상상적 공간이며 질서의 상징세계 속에서 인간이 회귀하고 싶은 원형의 공간으로 설명

11) 장신잉은 이러한 서술의 합리화와 일상 경험화의 실패를 현대의 ‘전기’를 탄생시킨 주요한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張新穎, 〈日常生活的“不對”和“亂世”文明的毀壞: 張愛玲創作中的現代“恐怖”和“虛無”〉, 《20世紀中國文學和現代意識》, 三聯書店, 2000, 159-161쪽.

12) 김순진은 이러한 대표적인 원형의 공간으로 <봉쇄>의 막힌 공간 ‘전철’과 <붉은 장미 흰 장미>의 흰장미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화장실’을 예로 든다. 김순진, 〈여성의 몸과 몸의 공간〉, 《중국어연구》 제25집, 222쪽.

한다. 이렇듯 김순진은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장아이링의 비일상적 공간이 닫혀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원형의 여성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독해해내며 ‘황량하고 ‘황야같은 감각을 던져주는 여성억압의 일상 공간과 대비시킨다. 김수연은 장아이링의 <경성지련> 과 <봉쇄> 가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서사축을 중심으로 다원적인 텍스트의 역사시공을 부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킨다.¹³⁾ 장아이링이 그리는 현대세계는 역사와 신화, 기억과 현실, 실제와 환타지가 교차되는 하나의 ‘전기(傳奇)’로 탈바꿈한다. 이로써 전통적인 역사서술 방식을 해체시키며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격리된 비상(非常)한 상태이자 문명의 껍데기를 벗어버린 가상적인 ‘신화적(어떤 현실) 및 그 속에서의 현대인의 인간적인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 신화적 현실로서 텍스트의 월경(越境)적인 역사시공은 이러한 문명의 논리와 선적인 역사서술 및 일상의 논리를 뒤엎으며 새로운 상상적 해석을 부여하는 지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김수연의 입론은 장아이링의 텍스트가 직선적이거나 합리적인 근대의 논리로 갈음될 수 없는 현실을 신화적인 현실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는 데 역점을 둔다.

김순진과 김수연이 원형 공간과 신화적인 현실이라는 개념으로 장아이링의 비일상적인 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장쉬동(張旭東)은 현대성(modernity)의 알레고리로써 현대도시의 몽환세계라는 열쇳말로 장아이링의 <봉쇄> 공간을 해석한다.¹⁴⁾ 이때 시공이 멈춘 도시는 현대도시의 성격과 장아이링 텍스트의 핵심을 일거에 포착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적인 공간으로 자리한다. 장쉬동은 장아이링이 상하이가 무방비상태이며 멈춰져 있고 몽환에 빠져있을 때, 전쟁이나 봉쇄와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도시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 때를 포착하여 이 내심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도시가 깜박 졸 때 그 무의식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

13) 이런 점에서 이는 이중적인 경계의 전시라는 명위애의 견해와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위애가 서술 등 표현에 중점을 두면서 현대성의 현실과 관련지었다면 김수연은 이를 ‘신화적 현실’이라는 개념으로 재독해해냄으로 비일상 영역에 방점을 찍는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김수연의 연구를 비일상 영역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김수연, <문화적 기억, 역사 그리고 시공: 시집존과 장아이링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20호.

14) 張旭東, <上海懷舊: 王安憶與現代性的寓言>, 《批評的蹤迹》, 三聯書店, 2003

그 꿈을 살펴보는 것이다. 장쉬둥은 장아이링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더 유효하게 도시생활 내심의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파지한다. 이 비일상적인 백일몽의 공간이 정상 상태보다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봉쇄〉의 전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위적인 정치 상태에서 현대도시의 위엄스러운 외양을 지탱하는 심리와 사회 기초는 순식간에 와해되며 승객들은 백일몽과 환상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든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환영같은 내부 광경으로 일상의 도시생활 체험의 전도된 질서가 구성된 겨울상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아이링이 일상/비일상을 다루는 방식을 다소 도식적이거나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그런데 위의 연구 가운데 두 번째 범주의 연구들은 일상이 인간의 비일상적인 환상세계를 잠식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비일상의 영역을 압도하는 일상의 논리의 견고함을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에서 비일상의 영역은 서사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했으되 서술 과정 속에서 일상에 의해 지워지거나 무력한 세계로 폐쇄 foreclosure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은 분석대로 동의하면서도 이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장아이링 소설에서 비일상 영역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비일상적인 영역이 일상과 엮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아이링 소설에서 비일상 영역이 지니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장아이링의 텍스트 속에서 비일상과 일상의 세계가 단절되어 비약적으로 전개되어 결국에는 비일상적 공간이 지워지거나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연관된다.

이러한 연구의 입지점은 세 번째 연구 경향과 관련되는데 비일상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은 원형 공간이나 알레고리 공간 등 이를 탈역사적으로 읽어내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공간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일상의 공간은 일상에 대한 저항과 박투 속에서 환상과 상상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만큼 비일상의 공간은 일상이나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비일상 공간의 개폐(開閉)에 대한 여성 캐릭터들의 민감한 반응은 이 공간을 구조적이거나

탈역사적이지 않은 삶의 의미와 그에의 의지를 투영하고 있는 현실성을 지닌 세계로 살아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장아이령 소설에서의 비일상적인 영역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봉쇄(封鎖)>와 <경성지련(傾城之戀)>, <침향의 재, 첫번째 향(沈香屑 第一爐香)>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일상적인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속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일상의 영역을 삶과 현실의 차원과 결부지어 재정위하는 문제이자 장아이령 소설에 두드러진 특징인 환상(성)에 현실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3. 봉쇄된 일상, 일상의 봉쇄

장아이령의 <봉쇄>는 비일상/환상의 순간을 일상의 시간 흐름 사이에 삽입하여 일상에의 회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로 손꼽힌다. 그러나 짧은 분량의 단편소설에서 대폭 서술되는 것은 봉쇄된 전차 안에 갇혀있는 비일상적인 공간이다. 이 봉쇄된 전차 공간에서 은행의 회계사인 휘종전(吳宗楨)과 대학 강사인 우첸이위엔(吳震遠)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의 마법이 풀리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봉쇄된 전차 안이라는 비일상적인 공간은 이들의 사랑을 도와주는 주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봉쇄'된 상황이 탈일상과 환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현현하며 이러한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의 모든 것은 재고되며 낯설게 다가온다. 이 비일상의 공간은 일상에서 은폐되거나 잊혀졌던, 혹은 잊고자 노력했던 '의미'들을 부상시키는 공간이다. 전차안의 사람들이 일상이 정지된 시간에 이러한 정지된 상황에 저항하는 관습적인 행동을 하는 것--신문, 영수증, 제품설명서, 명함, 아무런 인쇄물도 없는 사람은 간판이라도 읽는다--도, 우첸이위엔과 휘종전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세삼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도 이러한 시공이 정지되고 봉쇄된 상황에서이다.

그들은 이 무서운 공허를 어떻게든 채워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두뇌가 활동하기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생각한다는 건 언제나 괴로운 일이다... 평소 같으면 점수를 매기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오늘은 그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¹⁵⁾

말도 마세요.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이면 전차 타고 사무실로 가고 오후면 다시 전차 타고 돌아오면서도 왜 가는지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눈꼽만큼도 흥미가 없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 “난 내가 왜 날마다 시간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어디로 돌아가는거죠? 사실 난 돌아갈 집도 없는데 말입니다.¹⁶⁾

이렇듯 비밀상적 공간으로서의 봉쇄된 세계가 오히려 삶의 본모습(진상)에 다가가는 상상력과 사고를 개방시키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장아이링이 일상을 오히려 출로가 막혀있고 상식적인 사고만을 가능하게 하는 ‘봉쇄’된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아이링이 소설의 제목을 ‘봉쇄’로 지은 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일상이 오히려 ‘봉쇄’된 장소이며 이것을 ‘봉쇄’한 소설의 공간은 오히려 이러한 봉쇄된 일상의 영역을 개방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상적인 세계의 문은 ‘봉쇄’된 일상이 ‘봉쇄’될 때 열린다는 것을 제목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제목의 ‘봉쇄’는 봉쇄된 전차 안이라는 비밀상적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일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 일상은 “원래의 진짜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는 ‘번역된 성경’과 같으며 상식으로 타인을 기만하는 ‘호인(好人)’이 득세하는 세계이다.¹⁸⁾ 이에 비해 봉쇄된 전차가 상징하는 비밀상의 세계는 “부

15) 張愛玲, 〈封鎖〉,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1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99쪽. 이 논문에서 인용한 장아이링 소설 단락은 임우경의 미출간 번역원고를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16) 張愛玲, 〈封鎖〉,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1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03쪽.

17) 이런 점에서 일상과 비밀상을 ‘무형의 봉쇄’, ‘유형의 봉쇄’로 읽어낸 귀야오홍의 분석도 ‘봉쇄’라는 단어를 역설적으로 활용한 장아이링의 용법을 간파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郭曉鴻, 〈張愛玲小說的文化模式〉,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1年 第2期, 222쪽.

18) 장아이링의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인’은 그 행동과 사고가 모순으로 가득했으나 이러한 점을 모호하게 인식하는 인물들이다. 다음 대목들을 참고하십시오. “그녀는 좋은 딸이었고

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아기의 발바닥”같은 ‘진짜’를 감지케하는 ‘진인(眞人)’이 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된다.

한편 모르던 사이였던 두 인물이 순간적으로 나누는 감정의 교류인 ‘사랑’의 출현은 이 공간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는 일상이 억압하고 있는 진실한 감정과 교류가 싹트는 순간이다. 그런데 애정이 싹트는 순간에 휘종전과 우첸이위엔 사이에 오기는 대화는 로맨틱한 상찬과 고백의 언어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이다. 일상은 비밀상의 영역을 갈마들며 환상의 그물을 찢고 현실감을 부여한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은행에서 누가 그와 가장 친한지, 누가 걸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으로는 데면데면한지, 집에서는 어떻게 말다툼하는지, 그의 남모르는 비애들, 학창시절 그의 꿈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끝없이 이야기하건만 그녀는 싫증도 내지 않았다... 이제 종전은 첸이위엔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처럼 느껴졌다.¹⁹⁾

일상사로 비밀상적인 로맨스의 공간을 채우는 것은 장아이링이 상상하는 비밀상적인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비밀상적 공간은 관습적인 행동이나 사고로 은폐하거나 막혀있던 일상적인 감각을 개통시킨다. 곧 우첸이위엔이 휘종전을 발견한 양상대로, 이 곳은 일상에서는 지나쳤던 코끝 연골의 ‘투명함’과 구릿빛 손의 ‘예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상상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봉쇄된 전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분명 휘종전과 우첸이위엔이지만 일상이 심도를 띠고 다른 빛깔로 재현되는 것을 감지하며 비밀상에 재현된 깊이있는 일상의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첸이위엔이다. 그녀는 비밀상적인 공간에서

좋은 학생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샤워를 하고 빼먹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라디오를 틀어도 유행가나 코미디, 경극같은 것은 생전 듣지 않고 대신 곧 죽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베토벤이나 바그너의 교향곡만 들었다. 세상에 호인이 진인보다 더 많아... 첸이위엔은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 집안 사람들... 먼지 하나 묻지 않을 호인들... 그들이 너무 싫다! 그들은 그녀를 기만할만큼 기만해왔다.” 각각 張愛玲, 〈封鎖〉, 《張愛玲文集》, 安徽文藝出版社, 1996, 100쪽, 105쪽.

19) 張愛玲, 〈封鎖〉,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1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04-105쪽.

잊지 않고 현실적인 사고와 발언을 상기시키며(“택은 졸업장을 굉장히 중시하나요? 사실 여성교육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말예요!” “말씀이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비밀상이 순수한 환상으로 그치거나 일상과 관련없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것(“월경[越境])을 제어하는(“이혼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옳아, 그렇다면 첩을 들이시겠다 이거군요.” “하지만 양기집 처녀같으면 그렇게 하려들지 않을텐데요? 법률상으로도 복잡할 테고…”) 인물이다. 그리하여 봉쇄가 풀릴 때 즈음 상대가 다시 ‘호인’으로, 세계가 다시 일상의 표면으로 되돌아갔음을 알아채고 ‘울음’²⁰⁾을 터뜨리는 이도 우첸이위엔이다. 이에 비해 휘종전은 다른 빛깔로 재연되는 일상의 다른 모습에 ‘도취’된 인물이다. 그는 이 속에서 현실이 감지되자 환상과 선을 긋고 급하게 여기에서 ‘빠져나온다’. 따라서 우첸이위엔은 봉쇄가 되었던 시간의 성격을 알아차리나 휘종전은 그 시간을 점차 잊어버리며 일상의 표면적인 감각에 몸과 사고를 내맡겨버린다. 소설 말미의 ‘벌레’는 일상으로 회귀한 휘종전의 상태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봉쇄된 동안 일어난 일은 모두 다 없었던 일이라는 걸. 온 상하이가 깜박 졸다가 말도 안 되는 꿈을 한바탕 꾸었던 것이다… 휘종전은 식사시간에 딱 맞춰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차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첸이위엔의 얼굴은 벌써 가물가물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가 했던 말만은 아주 똑똑하게 생각났다.²¹⁾

이쪽 구석에서 저쪽으로 기어가던 검은 벌레 한 마리가 갑자기 불이 켜져 그대로 바닥에 딱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은 척 하는건가? 아니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루 종일 이리저리 기어다니느라 생각할 시간도 거의 없었겠지? 그러나 생각한다는 건 역시 고통스러운 일이다… 꼭 벌레 한 마리가 몸 속을 간질간질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검은 벌레는 그새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²²⁾

20) 울음은 가장 본원적이면서도 격렬한 감정 표현이다. 봉쇄가 풀릴 무렵에 휘종전의 바뀐 태도를 보고 터져나오는 우첸이위엔의 울음은 비일상적인 최후의 순간에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억눌린 감정의 극단적인 표출이자 곧 닥쳐올 일상의 태도와 감정상태에 대한 두려움, 아쉬움 등이 뒤섞인 표현이라 하겠다.

21) 張愛玲, 《封鎖》,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1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07쪽.

봉쇄된 전차 안에서의 순간적인 로맨스는 일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이 일상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비일상의 영역에 출현하는 일상은 현실적인 감각을 불어넣어주면서 환상의 외곽로 빠지는 것을 막고 비일상적 세계의 장력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일상에 젖어있는 관습적인 사고의 의미를 다시 길어 올려준다.

4. 이국 경험--“전혀 다른 세상에서”²³⁾

〈봉쇄〉에서 봉쇄된 전차 안을 비일상으로 닫혀있는 공간으로 그려냈다고 한다면, 장아이링의 홍콩 서사는 이러한 비일상을 홍콩이라는 다른 풍경을 가진 공간 속에서 체현되는 현실로 그려낸다.²⁴⁾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의 세계의 양상을 장아이링은 〈봉쇄〉에서 백일몽에 빠진 환상세계로 알레고리적으로 그려냈다면, 〈경성지련〉 등에서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체험하는 다른 세계의 모습으로 홍콩이라는 또 다른 식민도시를 끌어들인다.²⁵⁾

22) 張愛玲, 〈封鎖〉,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1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07쪽.

23) 이 구절(“전혀 다른 세상에서[隔世]”)은 〈경성지련〉에서 따온 것이다. 張愛玲, 〈傾城之戀〉,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2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79쪽.

24) 홍콩이 주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소설로 〈경성지련(傾城之戀)〉과 〈침향의 재, 첫 번째 향(沈香屑 第一爐香)〉, 〈침향의 재, 두 번째 향(沈香屑 第二爐香)〉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침향의 재, 두 번째 향〉은 유립인이 주인공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상 텍스트를 상하이 여성의 홍콩 편력을 다룬 앞의 두 소설로 제한함을 밝혀둔다.

25) 김순진은 장아이링 소설에서 상하이와 홍콩 서사를 제국과 갖는 권력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순진에 따르면 홍콩 이야기는 상하이의 시선 속에서, 제국의 이야기는 홍콩의 시선 속에서 억압의 외피를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곧 홍콩과 상하이를 취한 이유로 김순진은 두 도시가 갖는 ‘중간자적 지위’ 곧 ‘중국적인 특성과 중국내의 다른 지역에 대해 제국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어내면서 식민주의-제국주의와의 연관성상에서 두 도시 이야기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가 식민주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식민주의와의 연계와는 다른 비일상적 경험의 공간으로 홍콩 서사를 위치짓고자 한다. 위의 김순진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김순진, 〈홍콩을 통해 본 1940년대 상해의 식민주의와 젠더〉, 《중국학연구》 제23기, 17쪽.

환상의 격자를 던져낸 소설은 비일상의 모습으로 상하이 여성이 홀로 편력하는 홍콩이라는 낯선 땅에서의 이력을 담아낸다. 이는 봉쇄된 전차라는 인위적인 공간에서 전개했던 비일상적인 알레고리 세계의 세속화된 판본이다. 이 소설들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은 가족과 떨어져 고향을 떠난 여성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낯선 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장아이링이 최초로 발표한 소설인 〈침향의 재, 첫 번째 향〉(아래·〈첫 번째 향〉)의 서두는 조화되지 않는 색채가 뒤섞여있는 낯설고 불편한 장소의 감각을 막 길을 떠난 여성의 불안한 정서를 빌어 전달한다.

(…) 그 진달래꽃 너머에 바로 질푸른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또 하얀 선박이 떠 있다. 그 색깔의 대조가 너무 강렬해서 뭔가 현기증 나고 가짜같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외에도 이곳은 사망 모든 것이 다 대조적이다.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지방의 색채, 시대 분위기가 억지스럽게 한데 엉켜 기이하고 환상적인 풍경을 이루었다.²⁶⁾

홍콩을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서술하는 이러한 기조는 여성 인물의 고향인 상하이와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홍콩이 비일상성을 체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상하이는 일상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상하이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상하이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 불편하고 낯선 홍콩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것도, 이러한 일상적인 상하이/비일상적인 홍콩이라는 구상이 소설 속에서 작동하여 일상생활의 상하이와 다른 세계에 남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다.²⁷⁾ 〈경성지련〉에서 상하이에서의 일상이 갇아먹는 생의 활기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26) 張愛玲, 〈沈香屑 第一爐香〉,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第2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쪽.

27) 〈첫번째 향〉에서 일상적이고 소박한 상하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의 거부로 인해 웨이룽은 심한 병에 걸리며 이로 인해 고모집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웨이룽은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 이번 그녀의 발병은 어쩌면 받은 스스로 원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무의식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기를 바랬는지도.”, 張愛玲, 〈沈香屑 第一爐香〉, 위의 책, 41쪽.

바이쎬 공관은 마치 신선부같다. 여기서 한가롭게 하루를 보냈는데 세상은 이미 천년이 흘러 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천년이 흘러도 그건 세상의 하루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단조롭고 무료하기 때문이었다... 너는 아직 젊은 거니? 아무렴 어때, 몇 년 후 금방 늙어버린다 해도 이곳에서는 청춘이 귀한 것도 아니잖니. 그들에겐 날리고 날린 게 청춘인 걸—아이들이 하나 또 하나 끊임없이 태어나지. 반짝이는 새 눈동자, 붉고 연한 새 입술, 새로운 지혜가. 그러나 일년, 또 일년 시달리다 보면 눈동자는 멍해지고 사람도 따라서 멍해지고, 그때쯤 또 그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앞 세대는 금세 대련 위 주홍색 사금의 휘황한 배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겠지. 금빛 점 하나하나가 그렇게 빨려 들어간 선조들의 곁에 질린 눈동자일지도 몰라.²⁸⁾

그리고 이 속에서 홍콩은 낯설지만 해방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인물들의 사랑이 펼쳐지는 곳도 <경성지련>에서 바이류수(白流蘇)와 판류위엔(范柳原)이 처음 만난 상하이(上海)가 아니라 홍콩이며, <첫번째 향>의 여성인 물 거웨이룽(葛薇龍)이 상하이(上海)가 아니라 홍콩을 자기 삶의 정박지로 선택하는 것도 차오치(喬琪)와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가족과의 관계로 귀착되는 상하이의 일상적인 삶의 고리를 끊고 기존의 일상과는 다른 삶(“전혀 다른 세상에서”)을 살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의 사랑과 정주는 생활의 감각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성격을 지님으로써 홍콩의 비일상적인 일상의 감각을 강화한다. 소설에서 거웨이룽은 정식결혼은 하지만 고급 창부로서 살아가며 바이류수는 전쟁이 터지기 전 정부와 다름없는 처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상’적이며 비일상적인 일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홍콩에서의 삶은 생활의 감각과는 거리가 먼 비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형태를 띠며 여성들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지언정 상하이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성지련>에서 영국으로 판류위엔을 떠나보내고 혼자 홍콩에 남은 바이류수가 느끼는, 일상성을 다 떨쳐버리고 싶은 욕망과 허무가 충돌하며 이뤄내는 감정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28) 張愛玲, <傾城之戀>, 위의 책, 55쪽.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방으로 건너갔다. 비어있는 방들, 한칸 또 한칸, 이 깨끗하고 텅빈 세계! 그녀는 천장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텅빈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녀에게는 정적이 너무도 필요했다. 그녀는 너무 피곤했다. 류위엔의 비위를 맞추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이제 그가 가버렸으니 차라리 잘됐다. 그녀는 이제 겨우 한숨 들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 그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가증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모두 필요없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세계는 언제나 너무 붐벼왔다. 밀고 밀치고 밟고 엮고 안고 지고, 늙은이, 어린애, 사망이 모두 사람 친지였다... 이제 가까스로 멀리멀리 날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렀다... 그녀가 가진 약간의 학식이란 모두가 다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약간의 재주로 그녀는 현명한 아내가 되고 세심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집안을 꾸리려' 해도 근본적으로 꾸릴 집안이 없고, 아이를 키우려 해도 류위엔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가슴을 푹푹하게 펴고 등뒤로 두 손을 꼭 틀어쥐었다... 그녀가 자신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단 말인가.²⁹⁾

가족과의 절연, 로맨스, 뿌리없는 생활, 장아이링 소설 속의 홍콩의 상하이 여성들은 평범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은 이 사랑이 희생이자 거래임을 아는 생활의 지자(智者)들이다. 거웨이룽은 자신의 미래가 '끝없는 황량함'과 '끝없는 공포'라는 것을, 자신의 사랑이 거리의 여성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³⁰⁾ 전쟁이 터지기 전의 바이류수는 자신의 사랑에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치지 않고 정부로 한평생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지 않는다.³¹⁾ 그들은 상하이의 삶으로 표상되는 일상도 문제

29) 張愛玲, 《沈香屑 第一爐香》, 위의 책, 78쪽.

30) 가령 차오치와 거웨이룽이 선날 그믐날 밤 만자거리의 장에 나갔다가 거웨이룽을 거리의 여성으로 잘못 안 선원들에게 당한 봉변 끝에 읊조리는 웨이룽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라. “사실 내가 그 애들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차오치는 ... 다른 한손으로 웨이룽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그런 헛소리 하면---” 웨이룽은 웃으면서 용서를 구했다. “알았어, 알았어요! 내가 말을 잘못 했어요 어떻게 차이가 없겠어요? 그들은 부득이해서 하는 거고 난 자원해서 하는 건데.” ... 차는 캄캄한 거리로 들어섰다. 차오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본다고 해서 보이는 양을 테지만 그녀가 틀림없이 울고 있으리라는 걸 그는 알았다. 張愛玲, 《沈香屑 第一爐香》, 위의 책, 46쪽.

31) 소설의 말미에 홍콩전쟁으로 인해 판류위엔이 영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바이류수와

일상이 봉쇄되는 그 순간 : 장아이링 소설에 입문하는 한가지 방법 271

가 많지만 자신들도 ‘옳지 않음(不對)³²⁾을 알며 이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해진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봉쇄>의 백일몽의 알레고리가 홍콩이라는 현실에 강림할 때 이 낯선 땅에 막 도착한 여성들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경로를 버리고 비일상적인 일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다. 장아이링의 홍콩 서사 또한 홍콩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일상적 삶의 양태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박투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결혼으로 표상되는 ‘정상’적인 사교체계와 다른 비일상의 세계를 건립한다.

5. 나가며

본문을 통하여 장아이링 서사에서 비일상의 영역은 삶과 현실의 차원을 끊임 없이 검토하면서 이 영역이 환상의 외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여기에 현실적인 감각을 부여하며 현실세계와 장력을 만들어나감을 알 수 있다. <봉쇄>에서 봉쇄된 전차 안은 출로가 막혀있는 일상의 틈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이로 인해 전개된 비일상적인 세계도 일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한편 <경성지련> 등의 홍콩 서사는 홍콩이라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변안하는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 세계 자체를 현실과 격리시킨다. 이때 소설의 여성캐릭터들은 이러한 비일상적인 공간의 출현과 일상의 구멍 및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비일상적

생활하면서 이 둘은 정식결혼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 상하이로 되돌아간다. 상하이로 돌아간 다음 그들은 홍콩의 삶과는 다른 평범한 부부와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류위엔은 거의 그녀와 놀아주지 않았다. 그는 온갖 우스갯소리를 아꼈다가 다른 여자들한테 들려주었다. 그것은 정말로 축하해야할만한 현상이었다. 그건 그가 그녀를 완전히 자기 사람, 명실공히 정식 부인으로 인정함을 뜻했다. 그래도 류수는 여전히 어딘가 쓸쓸했다”, 張愛玲, <傾城之戀>, 위의 책, 124쪽.

32) 張新穎, <日常生活的“不對”和“亂世”文明的毀壞: 張愛玲創作中的現代“恐怖”和“虛無”>, 《20世紀上半期中國文學的現代意識》, 三聯書店, 2001.

인 공간에 일상적인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사시키면서 자기 삶의 경로를 고쳐 쓰고 이로써 비일상적 공간을 현실성을 지닌 세계로 되살아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아이링 소설에서 출몰하는 비일상적 공간은 오히려 일상의 논리를 재배열하면서 이 속에서 세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띤다. 비일상의 영역은 일상으로 가득했으나 그것(=일상)으로 전화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한다. 홍콩 서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일상인 삶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장아이링의 텍스트에서 일상/비일상의 통상적인 구분의 경계는 새롭게 정해지면서 현실 전체의 그물망을 흔들어놓고 있다.

《참고문헌》

- 金宏達·于青編, 《張愛玲文集》(全4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 子通·亦清編, 《張愛玲文集·補遺》, 中國華僑出版社, 2002.
- 孟悅, 〈中國文學“現代性”與張愛玲〉, 王曉明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下卷(修訂本), 東方出版中心, 2003.
- 陳子善編, 《作別張愛玲》, 文匯出版社, 1996.
- 陳思和, 《大耕集》, 上海遠東出版社, 1996.
- 王德威, 《想像中國的方法: 歷史·小說·敘事》, 三聯書店, 1998.
- 許子東, 〈一個故事的三種講法: 重讀《日出》、《啼笑因緣》、《第一爐香》〉, 王曉明主編《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第二卷, 東方出版中心, 1999.
- 張新穎, 〈日常生活的“不對”和“亂世”文明的毀壞: 張愛玲創作中的現代“恐怖”和“虛無”〉, 《20世紀上半期中國文學的現代意識》, 三聯書店, 2001.
- 郭曉鴻, 〈張愛玲小說的文化模式〉,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1年 第2期.
- 倪文尖, 〈上海/香港: 女作家眼中的“雙城記”: 從王安憶到張愛玲〉, 《文學評論》2002年 第1期.
- 羅艷, 〈傳統敘事模式對現代意識的牽絆——看《傳奇》中似乎寫“壞”了的奇〉, 《文藝爭鳴》2002年 第5期.
- 陸藝, 〈說不盡的“張愛玲熱”〉, 《開放時代》, 2002年 第6期.

張旭東, 〈上海懷舊: 王安憶與現代性的寓言〉, 《批評的蹤迹》, 三聯書店, 2003.

曠新年, 〈另一種“上海摩登”〉,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4年 第1期.

劉曉虹, 〈非常時期的“平常”取向: 張愛玲與蘇青的生存觀與文學觀剖析〉,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5年 第1期.

Rey Chow, *Women and Chinese Modernity: the Politics of Reading between West and Eas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Lee Ou Fan Leo, *Shanghai Modern: The Flowering of a New Urban Culture in China, 1930-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백영길, 〈장애령 소설의 정육과 허무의식〉, 《동아문화》 제34호.

임우경, 〈전쟁과 일상: 전쟁체험과 장애령의 문학세계〉, 《중국현대문학》 제17호.

김수연, 〈문화적 기억, 역사 그리고 시공: 시집존과 장애령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20호.

김순진, 〈장애령 소설에서 보이는 여성 의식의 한계〉, 『중국현대문학』 제15호.

김순진, 〈홍콩을 통해 본 1940년대 상해의 식민주의와 젠더〉, 『중국연구』 제23집.

김순진, 〈여성의 몸과 몸의 공간: 장애령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25집.

《영문초록》

My article is focussing on the non-routine domain in Eileeng Chang's novels, comparing with the daily life/routine of that. Before I analyse Chang's novels, I examine the tendency of study and divide it into three classes—narration mode, daily life(routine), and non-routine. As I agree partly with this existing study tendency, I observe how the non-routine domain is involved in the daily life.

I analyse that the non-routine domain investigates the real and life constantly and keep from falling into the fantasy domain. In doing so, the non-routine is endowed with the feeling of reality and build up the tension related to the real world. The inside of blockade trolley car in Blockade(Fengsuo) is an allegory about the split of daily life that has no way out. And I point out the way non-routine world is not exist without regarding to the everyday life. Meanwhile, the Hongkong narrative of Love in a Fallen City(QingChengzhiLian) and so on translates the secular and real space into the non-real space and segregate from the real by itself. At this moment, female characters in her novels recognize the split and contradiction of daily life and the advent of

non-routine. The female characters project her life to the non-routine space positively and revision the way of her life and resuscitate from the unreal to the world of reality.

Therefore, the non-routine space in Eileen Chang's novels dispose the logic of daily life and reconstruct the world itself in this situation. The non-routine domain is filled with the routine but is not transformed into the daily life. It becomes the important moment of organization of another possible world. The Hongkong narrative describes the world that the non-routine life is daily continued. Eileen Chang's texts newly settle the "normal" boundary of routine/non-routine and disturb the whole real world.

관건사: Daily Life, Non-Routine, Fantasy, Imagination, Reality

